

AI 면접... '광주권 일자리박람회' 성황

DJ센터 구직자 6000여명 몰려 인공지능 매칭 27개 기업 면접 66개 지역기업 채용정보 제공

광주시에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광주권 일자리박람회'에 구직자 6000여 명이 몰렸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주최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권 일자리박람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정보 제공, 취업설명회, 현장 면접 등 기존 방식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인공지능 면접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해 많은 구인, 구직자의 관심을 끌었다.

광주시는 박람회에 앞서 지난 6일까지 온라인 AI 면접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261명의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인공지능 면접에 참여했다. 또 이들 구직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사전에 매칭된 금호 HT, 오이솔루션 등 27개 기업과 심층 현장면접을 했다.

온라인 AI 면접을 거쳐 사전에 매칭된 기업과 현장면접을 본 김도현씨는 "미리 온라인 면접을 보고 인공지능이 매칭한 기업정보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며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AI 면접을 실시한 ㈜오이솔루션 안영호 인사팀 과장은 "AI 면접 지원자의 성향·직무능력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박람회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구직자들

과 심층 면접을 실시, 짧은 시간동안 맞춤형 인재를 찾을 수 있었다"며 "AI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방문객이 인공지능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AI 면접 체험관도 청년 구직자들도 하루종일 북적였다.

이 밖에도 박람회에는 66개 지역 우수기업이 참여해 연구직, 관리직, 생산직, 사무직, 상담직 등의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청년, 여성, 중·장년, 대학졸업 예정자, 특성화고교생 등 다양한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1000여 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치렀으며, 150여 명은 추후 2차 면접을 할 예정이다.

기업 채용관과 함께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전·한전KDN·광주은행·농협 등 채용홍보관과 금감원·광주시 등이 참여한 채용설명회에도 많은 구직자의 발걸음이 이어

졌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꿈꾸는 일자리에 도전하고, 기업은 가장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간 내에 참여하지 못한 AI 면접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추가로 온라인 AI면접 수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구직자 면접 분석결과를 구인기업에 제공한다.

이용섭 시장은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잡 매칭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청 등과도 협의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다문화 아동 생일잔치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와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대표 정미선)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평동역에서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펼쳤다.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국적 영유아 22명의 생일잔치(사진)와 함께, 다문화 국가의 음식을 나누는 세계 음식축제가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생일상 장식, 의상 준비, 음식 마련 등 재능기부에 나섰고, 공사도 축하 현수막 게시와 행사장 정리,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아동을 위한 기증품 전달 등 힘을 보탤었다. 또 문화공연, 인형만들기, 색칠놀이 등 가족단위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로 흥을 더했다. 공사는 평동역을 다문화존으로 활성화해, 내년부터는 각 국가별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례 만들고 컨설팅·멘토링

북구 청년창업 지원체계 구축

광주시 북구가 청년창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북구는 23일 "문인 북구청장이 지역 청년창업기업(쉐어하우스 공명)을 찾아 청년창업자, 일자리 전문가들과 '청년창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청년창업자와 전문가들은 "청년창업 수요는 높지만 지원 부족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에 2/3가 폐업하는 상황인 만큼 창업 보육과 재기 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북구는 청년들이 전체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과기원, 전남대 등 6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컨설팅,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사업 수행·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창업포럼 개최 등 청년창업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청년창업자 상품 우선 구매 등 청년창업기업의 구매 촉진에도 나선다. 그밖에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시스템 운영 등 '청년창업 도약 프로그램'과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을 펼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2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2018 공무원연구모임 성과발표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총인처리시설 초미세기포 주입 시스템' 연구팀 대상

공무원연구모임 성과 발표회 20개팀 7개월 연구 활동 결산

광주시는 2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2018 공무원연구모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2018 공무원연구모임 성과발표회'는 공무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활동을 결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234명이 참여하는 20개 팀을 구성, 7개월 간 연구 활동을 해왔다.

이날 발표회는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팀(119명)을 대상으로 대상, 금상, 동상

등 등위를 가리는 결산 PT경연을 진행해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4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총인처리시설 상암부상조 초미세기포 주입시스템'을 연구한 '마이크로 버블을 잡아라' 팀이 차지했다. '마이크로 버블을 잡아라' 팀은 환경오염원 처리시설에서 약품(고분자응집제, 기포제)을 이용한 상암 부상공정을 초미세기포(마이크로 버블) 부상공정으로 대체해 총인처리약품비 등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기술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광주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상암부상조의 공정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상은 혁신장소 사례와 관광자원을 잇는 광주의 마스터피스로드의 5가지 프

그램(생태문화, 청년정책, 다문화정책, 전통문화, 복지정책)을 제안한 '광주의 마스터피스' 팀이 수상했다. 또 다른 금상을 수상한 '자동차 신 시장 개척' 팀은 애프터마켓 해외시장 진출로 광주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부품산업의 해외, 국내 현황을 분석, 광주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서방지하상가의 화려한 부활' 팀 등 3개 팀이 은상, '광주의 미래! 공항부지를 스마트하게' 팀 등 4개 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공직자연구모임은 2007년부터 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구 합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26일까지...직원 12명 교차 점검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직원 12명이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치구에서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등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 가량으로, 전체 면적의 48.8%를 차지한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불법 건축 48건, 불법 형질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6건 등 총 59건을 적발해 현재 45건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14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청홍보 앱 '동구 두드림' 참여자 이벤트

광주시 동구는 23일 "구청홍보를 위한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에서 정책투표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정책투표에 1건 이상 참여한 회원 중 모두 3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 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1일이며, 투표에 참가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두드림 앱에서는 동구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투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구정베스트 설문조

사를 비롯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점 조형물 디자인 선택조사' '물품공유센터 내 공유필요물품 수요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투표가 진행됐다.

한편, 동구가 모바일시대를 맞아 주민들과 폭 넓게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한 '두드림' 앱은 10월 현재 주민 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정책투표는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302호
 -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 전체 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65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 ✓ 53평, 701호
 - ✓ 사무실/주거겸용, 20층중 7층, 코너
 - ✓ 전체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3대 무료
 - ✓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9000만원
-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문의. 010-6834-7400